

2024. 4. 15.(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2133-5260
아시아태평양팀장	김미선	2133-5277
담당자	이지영	2133-5272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 첨단혁신도시 시애틀시장,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동행매력' 정책 배우러 서울 온다

-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을 단장으로 정부·기업·학계 등 시애틀 글로벌 리더 67명 참여
- 단일 도시 최대 규모 사절단...시장면담, 서울정책공유 포럼 통해 시 정책 전수하며 환대
- 안심소득·서울런 등 약자동행부터 그레이트 한강·첨단산업 등 매력도시 서울 전략 전수
- 서울스마트라이프워크 등 향후 협력 가능한 행사와 분야도 공유, 긴밀한 교류 이어갈 것

- 작년 6월, 오세훈 시장과의 첫 만남에서 서울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참전용사의 아들이자 시애틀 최초의 아시아계 시장인 브루스 해럴(Bruce Harrell) 시장이, 이번에는 67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끄는 단장으로 4월 15일(월), 서울을 찾는다.

### <시애틀 경제사절단 방한 개요>

- ① 프로그램 : International Leadership Mission (국제 리더십 미션)
- ② 일정/장소 : '24년 4월 13일~20일, 서울, 대전, 부산 등 ※ 방문지 선정투표: 한국 1위
- ③ 대표단 : 시애틀시장, 워싱턴주 의원, 시애틀 소재 기업 리더 또는 중간 관리자급 67여 명
- ④ 관심분야 : 해양/항만, 항공우주, 청정에너지/기후, AI/칩/연결성, 인력/의료, 교육/생명과학
- ⑤ 주 관 : 시애틀 메트로 상공회의소, 그레이트 시애틀 파트너스
- ⑥ 방한개요 : 주요 글로벌 리더 및 기업 간 유대 구축, 타 도시 모범 사례 습득 기회 마련 등

- 이번 방문은 시애틀 경제개발공사(Greater Seattle Partners)와 광역 시애틀상공회의소(Seattle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가 주관하는 「국제리더십미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을 찾는 경제사절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주요 도시정책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싶다는 시애틀 측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정부, 기업, 학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리더 67명이 한꺼번에 서울을 방문하는 만큼, 서울시 또한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도시정책 및 개발 분야의 정책 전문가가 정책 비법을 전수하며 환대에 나선다.
  - 경제사절단은 워싱턴주 의회 인사, 시애틀 및 타코마 항만청, 킹·스노호미시 카운티, 벨뷰시 등 정부인사뿐만 아니라 시애틀 경제개발공사, 광역시애틀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보잉, T-모빌 등 주요 기업, 워싱턴대학(UW) 및 워싱턴주립대(WSU)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됐다.
- 시애틀은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에서 한인 인구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증가한 워싱턴주의 최대 도시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IT 기업은 물론 우주·항공 분야의 첨단을 달리는 보잉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위치한 최첨단 산업도시이다. 올해 3월, ‘One Seattle Plan’(하나된 시애틀 계획)을 발표하고, 약자와 성장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 One Seattle Plan 종합계획은 향후 20년과 더 먼 미래를 위해 시애틀 지역사회의 성장 및 투자 부문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정표로 보다 형평성있고, 살기 좋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있는 시애틀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서울을 방문한 ‘시애틀 경제사절단’을 위해 서울시는 15일(월) 11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동행매력특별시의 대표적인 정책을 패키지로 소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애틀시장 및 대표단 정책 공유 포럼>**

- 일시·장소 : '24. 4. 15(월) 11:00~13:00 / 다목적홀
- 참 가 자 : 행정1부시장, 경제정책실장, 유관기관, 시애틀 경제사절단 등 총 90여 명
- 프로그램 : 서울시 주요 정책소개 및 질의응답

- ▲안심소득 ▲서울런 ▲기후동행카드 ▲탄생응원 서울 ▲손목닥터 9988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녹지생태도심/정원도시 ▲창조 산업육성 ▲자율주행 버스 등이 포함된다.

- 또한,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24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트라이에브리씽(Try everything) 2024,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등 다양한 국제행사들을 소개하고 분야별 협력 강화로 양 도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체감가능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뜻을 모은다.

-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대규모 시애틀 경제사절단의 방문으로 양 도시간 경제,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더욱 돈독한 우의를 다지고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고, 시민을 포용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만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시애틀시장 인적사항 및 시애틀시 개황

□ **성 명** : 브루스 해럴 (Bruce Harrell)

□ **생년월일** : 1958.10.10 (현 66세)

□ **출 생 지** : 워싱턴주 시애틀

□ **학 력**

○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학사 (1980년)

○ 워싱턴 대학교 법학박사 (1984년)

○ 시애틀 시티 대학교 조직 디자인과 개선 석사(1994년)

□ **주요경력**

○ 시애틀시장 ('22.1~현재)

○ 시애틀 시의원 ('08.~'20, 시애틀 시의회 의장 역임 등)

- '13년 시장직 출마(본선 진출 실패), '17년 9월 시장 사임 당시 5일간 시장 대리

□ **가족사항** : 배우자(Joanne Harrell), 자녀 3명

□ **참고사항**

○ 시애틀시 최초의 아시아계 시장이자, 두 번째 흑인시장

○ 아프리카계 부친 및 일본계 모친 (어린시절 교육의 영향으로 정의 및 다양성 가치 강조)

○ 2020년, 지역사회 기업인, 지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코로나 중소기업 회복 태스크포스' 지휘

○ George Floyd 죽음 이후, 인종차별의 변화와 정의를 위한 평화적 시위 합류



□ 기본개황

- 위 치 : 미국 워싱턴주
- 인 구 : 749천명 ('22)
  - 백인(70%), 아프리카계(8%), 아시아계(15%) 등
  - 시애틀 대도시권 인구는 400만여 명으로 미 서부 (LA/샌프란시스코/피닉스)에 이어 4번째로 큰 도시권



□ 주요특징

- 1979년 마이크로소프트(MS) 시애틀 이전을 기점으로, 다수 글로벌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최첨단 산업도시로 각광
  -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코스트코(CostCo),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 본사,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연구 캠퍼스, 보잉(Boeing) 생산공장 소재
- 매년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10위 권 내에 링크되는 대표적 창업 도시
  - ‘23년 10위, ‘22년 9위, ‘21년 10위 (글로벌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 발표)
  - ※ 2023년 서울랭킹: 12위
-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도시 (미국 인구조사국, ‘23.5)
  - 1년간(‘21.7~‘22.7) 인구증가율 약 2.4%로, 미국 도시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44년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 2위 포트워스(텍사스), 3위 샬럿(노스캐롤라이나), 4위 마이애미, 5위 잭슨빌(플로리다)
  - 글로벌 기업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경제기반과 살기 좋은 환경이 인구 유입 유도
-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이민자 포용적 도시
-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본토 도시로, 시애틀 북부 도시 ‘벨뷰’에 교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견고한 한인 커뮤니티 형성